

보도시점

2025. 3.

배포

2025. 3. 14.(금),

농어촌공사 밀양지사,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

- 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 -

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(지사장 김재홍)는 3월 13일(목), 밀양지사 소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 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.

밀양지사는 농지은행의 「맞춤형농지지원사업」 및 「농지임대수탁사업」을 통해 지난해 878농가에 271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김재홍 지사장은 “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.”라며 “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(www.fbo.or.kr)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(1577-7770)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*선임대후매도사업: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.

담당 부서	농지은행관리부	책임자	부 장	조정란 (055-359-6300)
	농지은행관리부	담당자	과 장	김경미 (055-359-6308)

간담회(2025.03.13.) 사진

